

2023.10.22.(주일) 열왕기하5:15-19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김양재 목사님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끗해진 나아만이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깨끗해져서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신앙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뒷간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을 적 마음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서양에서는 “빌릴 때는 천사 같을 때는 악마” angel[엔젤,천사]과 devil[데블, 악마]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고 매달리다가 원하는 것을 딱 일단 손에 넣고 나면 그냥 태도가 차갑게 싹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얼굴이 딱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나아만도 뒷간 갈 적 마음과 나을 적 마음이 달라졌어요. 근데 나쁘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좋게 달라졌습니다. 요청할 때는 거만한 장군이었는데 은혜를 갚을 때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는 확실한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실한 신앙고백을 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고백은 첫째로

1.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기 나병이 깨끗하게 된 나아만은 아마도 전자동으로 모든 군대와 함께 아람으로 직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도로 왔다’고 그러죠. 사실 나병 치료에 대해서는 빗진 게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예물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도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어요. 나병 걸렸을 때 나아만은 거만한 군대 장관으로서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vs. 하지만 나병의 고침을 받고 돌아온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그의 종이 되어 섰습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생각이 깨어지는 자리예요.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말씀을 들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자리고, 분노하며 떠났던 자리였어요. 자존심만 내세웠더라면 절대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자리였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찌질해서 무시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했더니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이 기적 앞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던 자기 거만함을 생각했어요. 아바나와 바르발을 자랑하며 요단을 무시하던 그 자랑질을 생각했어요. 아람의 신 림몬을 숭배하며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자신의 거만함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은 없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아만은 내 생각이 옳다는 이 거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장군의 자존심을 버리고 종으로 섬기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난 나아만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고 삶의 가장 윗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영육 간에 [슈브] 동사를 써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신앙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없는 회개는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오픈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고! 죄를 인정하게 하는 능력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신유의 은사로 병이 났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그건 이제 말짱 꽂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었던 말씀대로 일어난 이 치료의 기적을 보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나요? 신앙고백을 했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모르던 걸 알았어요. 희미하게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 이해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던 하나님을 이제 내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이 진짜이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것은 선물이나 답례품이 아니에요. 오늘 예물이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고자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베라카]예요. 여러분, 우리들교회가 맨날 부르짖는 [바라크] 아시죠? 그 [바라크]의 명사인 거예요.

요. 무릎 꿇고 예배하고. ‘무릎 꿇다 예배하다 복을 내리다’ 이게 동사인데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쟁취하려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이 바로 [베라카]죠.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바라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우린 [바라크]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돌려드리는 마음’ 즉, 예배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회복된 분들은 이 헌금 생활이 무릎 꿇고 예배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래서 이 복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세금이 되면 예물이 아니고 답례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답례했는데 그다음에 그쪽에서 답례 안 하면 우리 분하잖아요. 엿그제 결혼식에 뿌린 경조사비를 미국 가서 결혼하는 바람에 회수를 못해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내가 답례품을 꼬박꼬박 드렸는데 상응하는 답례품이 안 오면 여호람처럼 탄식하며 옷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어린 소녀는 적국에 잡혀가도 원수를 사랑하며 나만의 병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여종인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것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복이에요. 이 소녀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없어서 못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받은 복을 세어 보면서 이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 헌금 본문이 안 나오면 따로 헌금 설교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10년 만에 특별 부자도 없는데 모든 환경을 역사하셔서!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러나 원칙을 지키면서! 개미 군단의 역사로 판교에 8천 평의 성전을 빚안지고 헌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라카! 바라크의 예물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예물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도 여전한 방식의 일반 재정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특별’자 붙는 거 정말 안 한 것 같아요.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여러분의 신앙고백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뭐 다 지어줬다~ 이런 얘기 우리 없잖아요. 그죠? 누가 땅을 기증했다~ 이딴 거 좀 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뭘 기증했다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다들 좀 이제 기증 좀 하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되면요, 저절로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20년 지났으니까 요새는 저는 이렇게 열매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겉은 위풍당당 휘황찬란한 대장군이지만 갑옷 속에 나병을 숨긴 나아만의 ‘이전’ 삶이 있잖아요. vs. 근데 갑옷 다 던져버리고 초라한 선지자 앞에서 종처럼 서 있지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나아만의 ‘이제’의 삶이 있어요. 거기서 뭘 선택 하시겠어요? ‘이전’과 ‘이제’와. 여러분, 자녀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벌, 직장,

좋은 결혼을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영적 나병에 걸린 것과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에서 종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둘 다 갖추기를 원하시죠? ^^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 깨끗함을 얻는 것! “예수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나중이에요. 학원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 주일 성수가 먼저예요. 내 생각대로 멀리멀리 떠나는 것보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증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과부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10명 데리고 목회하시다가 그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들교회 오셔서 우리들교회에 그분이 기증한 게 유일해서 판교채플에 ‘연수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부의 엽전 두 푼으로 영육 간에 이렇게 이어져 가네요. 그 일이 또 생각나서..)

타락한 인간 본성은 잠시 숨어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이 절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이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예배 회복의 예물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영과 육의 베라카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줄 믿습니다!

■ 적용질문

Q.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뒷간 갈 적 마음입니까, 나올 적 마음입니까?

즉, 간절합니까? 입을 싹 씻고 있습니까?

Q. 여러분의 헌금은 답례품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드리는 신앙고백의 베라카의 예물입니까?

Q. 갔다가 도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목장, 양육, 가정,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복인지 아셨죠? 거기다 바라크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놓치시면 이제 안 되겠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고백은 두 번째는

2.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16-17절)

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드리는 예물을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했어요. 다시 강권했겠죠. 몇 번을 반복하다가 끝내 엘리사가 이겼어요.

나아만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받는 것이 훨씬 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엘리사는 구원을 위해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나아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나아만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아만의 그 마음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의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섬세하게 디테일을 챙기면서 인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로채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것 하나도 모르는 초신자 나아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그저 인정만 생각해서 받는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나아만이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은혜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나아만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회개가 더 큰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끝까지 예물을 거절하여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물을 안 받는 건 아니죠. 수넴 여인의 게스트하우스는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 건 받고 여기는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원이라는 게 정말 Flexible[플렉시블, 유연한]한지 몰라요.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자 나아만이 오히려 다른 요청을 해요. 17절입니다.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부탁해요. 노새 한 마리가 나를 수 있는 무게가 보통 70kg 정도라고 하니까 약 140kg의 흙을 가져가려고 하죠. 나아만의 신앙이 이제 갓난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흙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또 우상숭배라고 하고.. 진짜 근데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구속사라는 게.. 그게 아주 그냥 묘합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아람의 림몬 같은 다른 신에게 드리는 우상숭배를 멈추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만일 엘리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아만이 드리는 예물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나아만의 신앙은 온 천하에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고백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 고백으로 드린 예물을 선지자가 만약 받았다면 그럼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지 않았어요. 돈에 자기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또 나아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정에 자기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돈이든 인정이든 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기 쉬운 것 아닙니까? 돈과

인정에 치우쳐서 지금 모든 범죄가 행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발람은 돈에, 인정에 마음을 드리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우상숭배를 단호히 멈추고 오직 나아만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예배하는 모습을 나아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 **다른데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한 길-사람 살리는 연구-에만 매진하여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커리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백신의 어머니’ 소리를 듣게 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커리코는 지난해 바이오엔테크를 떠나서 세계드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대요. mRNA라고 ‘메신저 리보핵산’으로 모든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유예요. 이 커리코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헝가리 이민자이고, 여성 과학자예요. 그녀의 길은 정말 무시받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학에서도 전임에서 쫓겨나고, 보이지 않는... 정말 한 길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학내 정치나 연구비보다는 오직 과학에만 관심이 있었다잖아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으니까 커리코의 또 인생이 나와서 읽어보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지만은 저는 여성 목사로서 공감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 성공이 아니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수도 없는...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커리코는 실험광이였대요. 동료들에게 “**실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대가 실수할 뿐이다**”라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을 자주 들려줬는데요. 그 미련할 정도로 고집한 그의 신념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 많은 생명을 구했고, 앞으로 구하게 될까요? 근데 그는 정말 그 학내 정치, 연구비에 관심 없고 과학에, 사람 살리는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 제가 지금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거는 진짜 이 목회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가치를 가지고 수도 없이 소그룹의 나눔을 듣고 또 듣다 보니 ‘이 수많은 소그룹의 임상이 우리들교회의 견인차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론으로 아무리 목회를 해도 우리는 처음부터 소그룹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목장. 교회 건물이 없어도 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아무리 과학계에서 무시를 받고, 무시를 해도 그 한 길로 계속 왔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니까 나아만도 온 천하의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이 다른 신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그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 **한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념을 섬긴 나머지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중국의 송경영 이야기.**

요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계속 제가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은 제가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요. 청나라가 쇠퇴해갈 쯤에 링컨에서 힌트를 얻어서 신해혁명을 일으켜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에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중화민국을 건국한 손문(쑨원). 그 손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어려서 중국집에 가면 늘 그 손문과 장개석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되신 분이네.^^) 근데 그 중국 현대사에 가장 유명한 세 자매가 있죠. 송애령, 송경영, 송미령, 송 씨 세 자매인데요. 이 셋 모두 첫째 송애령은 손문의 비서였다가 당시 상해 최고 재벌인 공상희와 결혼을 했고, 둘째 송경영은 이 손문과 결혼을 했어요. 셋째 미령은 손문 사후에 중화민국 지도자가 된 장개석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 자매가 다 영웅과 결혼한 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딸을 낳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송씨 세 자매의 부친은 송가수인데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살 때 살길을 찾아 외삼촌과 함께 미국에 가서 거기서 세례받고 벤더빌트 대학에서 신학 공부해서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또 아주 기독교 명문가인 믿음이 좋은 목사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골수 기독교인들.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전도 사역이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생계 걱정을 해야 되니까 송가수의 마음이 점점 사역에서 멀어지고 이제 돈 버는 일로 쏠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아주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경영이 태어날 무렵 송가수 목사는 목사직을 사임하고 이름도 ‘송요여’로 바꿨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러다 손문을 만나서 중국에 대한 그의 뜻을 듣고 이제 손문의 혁명 운동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세 딸 모두 어린 나이에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이제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기사, 식모, 친모 다 두고 저택에서 이 모든 아들 딸을 유학 생활을 했어요. 자녀들이 인생의 모든 희망을 이루어낼 수 있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계속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계속해서 부풀려 준 것이죠. 고난도 없이 어려서부터 왕족처럼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근데 이 세 자매 모두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유명 인물이 되었어요.

첫째 딸은 돈을 사랑했고, 둘째 딸은 권력을, 셋째 딸은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들 절세미녀예요.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갖췄어요. 근데 이제 둘째 경영이

송칭링이라고 하죠. 중국을 사랑하는 중국의 국모로 추앙을 받는데요. 송경영은 독립심이 강하고 가장 이렇게 신중한 딸이라고. 이 딸들이 또 미국에 가서 어느 대학을 갔냐 하면 감리교 대학인 웨슬리언 여자대학을 졸업했어요. 힐러리가 졸업한 최고의 여자대학이죠. 졸업한 후 중국에 돌아와서 언니 애령의 뒤를 이어서 손문의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차이가 나는 아버지하고 친구인 손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기독교인인데... 손문은 처첩이 많은데... 그냥 어떻게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냐고 다 뜯어 말렸지만은 둘이서 일본에 가서 결혼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결혼을 말렸다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화가 나서 그 이후로 둘다 다 교회에 안 나갔데요. 손문의 일이에요. 이후 송경영은 손문의 아내이자, 비서이자, 전략가이자, 동지로서 혁명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는 딱 10년 살았어요. 10년. 그러니까 송경영은 그냥 31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손문 사후에 56년이나 더 살면서 평생 중국을 위해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손문 사후에 국민당. 손문이 지지했던 국민당이 우파와 공산당의 좌파로 국공이 나누어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송경영은 우파인 장개석과 반대하여 좌파 편에 서요. 당연히 장개석의 아내였던 동생 송미령 과도 결별하게 되고, 이 둘은 이후 평생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그 친했던 자매들이 그러니까 여기 권력욕이 썰서 이제 손문의 후계자가 장개석인데 장개석하고 이미 동생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2인자는 못하겠다. 근데 그때 공산당에 모택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경영은 ‘손문의 미망인’이라는 간판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당, 근데 국공이 전쟁을 해가지고 공산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장개석이 쫓겨가서 대만으로 가서 ‘중화민국’을 세웠고,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때 송경영은 ‘손문의 미망인’이라는 간판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에서 다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문은 지금도 우리나라 정말 이승만처럼 여겨지는 중국의 왕정을 끝낸 사람이잖아요. 삼민주의로. 그래서 이제 중국 모택동의 그거를 이어서 두 번이나 부주석이 됐고, 유일한 명예주석 칭호도 받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부인 손문의 미망인이 지지하는 정권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당성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좌파-우파, 모택동-장개석을 나눠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송경영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경영이 장개석(장제스)을 그렇게 비난하고 미워한 이유가 손문의 뜻인 국공합작을 깨뜨리고 내전을 일으켰다는 그것도 있는데 그랬던 그녀가 그 모택동(마오쩌둥)이 얼마나 잔인해요?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부모 묘소도 다 파헤쳐졌지만 거기서도 손문의 미망인이라는 이유로 살아남았어요. 아버지도 목사고,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데 사상과 혁명에 자기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언니와 동생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인민 혁명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권 편에 선 것이예요. 나중에 후에는 후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에서는 가정(假定)이-‘만약에’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교훈을 위해서는

Think를 해봐야 하는데요. 만일 송경영이 공산당 편에 서지 않고 동생과 함께 장개석을 도와서 국민당 편에 섰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모습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와 전제주의 선봉으로 주변 국가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흔드는 현재 그 중공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어요? 탁월한 배경과, 경력과, 능력과, 성품과,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념을 섬긴 나머지 멀리멀리 가버린 결과가 너무도 큰 거예요.** 그의 아버지 송요여가 목사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좇아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죠.

저 큰 중국이 한 여인의 영향력 있는 결정으로 공산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깐.. 그냥 이 송경영이 손문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그거를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한 사람 때문에 가고 오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는 왕정이 끝나고.. 우리 조선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평등하다고 하니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거의 다 공산당을 택했어요. 북한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지금 독재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걸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은 이 대만을 또 침략하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를 택하고 있는 이슬람에 속하는 많은 나라도 왕은 천문학적인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지난주일 시몬 페레스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그 오슬로 회담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개 국가로 가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지금의 이 네타냐후가 강경 세력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평화 기조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 둘째 딸 송경영의 기가 막힌 결정을 보면서 어린 소녀 같은 우리들교회 성도 여러분의 결정 하나하나. 여러분의 결정 하나아만 다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결정하시겠어요? 결정하시겠어요? 그때 공산당을 택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택하시겠어요? 그걸 몰랐으면 몰라. 미국에서 그런 기독교의 목사 딸이 돼서.

저는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에서 빼수 없는 적용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적용을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신앙 교육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제가 중국 얘기했는데 정치 얘기했나요? 여러분 몰랐죠? 몰랐죠? 인조왕 얘기도 아무도 몰라. 인조는 9번을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서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능한 왕이 그래도 살렸다구요. 그 사람이 오랑개에게 절해주니까 백이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기로. 구속사라는 건 항상 구원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내 선택의 목적은 돈입니까, 구원입니까?

Q. 구원을 위해 거절해야 하는 이익이 있습니까?

Q. 기복적인 욕심인 것을 애써 외면하며 아직도 끊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상, 이념, 명예, 돈, 자식 등)

Q.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들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송경영이 모택동을 택했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중국의 국모로 칭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요?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고백은 세 번째

3. 죄사함의 평안을 누립니다. (18-19절)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흠을 달라고 부탁한 나아만은 한 가지 일을 더 부탁하는데요. 용서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부탁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국가 행사에 참석하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람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그냥 몸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하는데, 자기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등장했던 얼마 전 모습은 이제 나아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저 한 사람의 죄인으로, 용서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인생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인생임을 아는 것, 또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된 것이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깨끗함을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몸에 아무 질병이 없어도 이 영혼의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깨끗게 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왜 사는 의미가 없습니까?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몸이 질병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신이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알고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

를 구하는 것 자체가 깨끗한 인생,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송미령과 송경영은 죽을 때까지 안 만났다는 거예요. 송미령(장개석 부인)은 언니가 아파서 죽어가면서 만나고 싶다고 했지마는 그러나 언니는 보고 싶었지만, 거기에 휘둘릴 수 없다고. 그래서 못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정치가 뭐라고.

자, 이런 겸손한 부탁에 엘리사는 뭐라고 답합니까? 19절이예요.

(나아만이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19.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용서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답은 “평안히 가라” - 죄사함의 평안-이예요. 거만함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으니까 이제 자신이 살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버려라. 평안을 가지고, 살롬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면 “평안입니다”의 인생이 됩니다. 수넬 여인이든 나아만이든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평안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 돌아와 평안을 얻으라는 이정표이자 알람입니다. 사건이 올 때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오르락내리락 울그락불그락 할 게 아니고요, 사건이 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살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롬”을 주십니다!

■ 승진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방황하면서도 큐티하고 목장에 나오며 하나님을 찾으신 부목자님 나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히 남자들은 승진이 안 되면 다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주일에도 우울증 걸렸는데 이번 주일에도 승진이 안 된 이 부목자님은 나눔을 좀 들려드리면. 승진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나 봐요.

“추석 연휴에 5일이나 길게 쉬니까 그다음에 회사 나가기가 너무 싫고, 그런 느낌이 처음이고, 그렇게 힘들어지니 술이 당기고, 하루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해석됐다가도,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나~’ 그래서 점심에 너무 밥을 먹기 싫어 혼자 사무실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승진도 안 됐는데 일은 왜 하나?’ 다 지치고 회사도 집에서 귀찮아하지만 (근데 이제 그다음에) 말씀 듣는 큐티와 예배의 자리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먹고 누워서 유튜브를 보며 웃는데 딸과 아내가 싸운 타이밍이었던대요. 중간에서 조정을 해줘야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내 마음에 악이 있어서 승진이 안 되는 거다!”하고. 오늘도

회사에 가기 싫고, 과업도 하기 싫고, 밥도 안 먹혔고.. 그래도 또 큐티를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도 큐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난 이게~~) “최근 많이 했던 기도가 승진과 믿지 않는 누나 가족의 구원인데 마음으로는 승진에 대한 것을 우선시에 두었지만 그래도 기도상으로는 누나 가족을 우선으로 두고 기도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게 어디예요?) “다행히 조카가 교회에 등록했고, 2주 연속 교회에 나왔다. 처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지만 내 스스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진이 안 되니까 해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임을 느낀다. 회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에 집중해서 가야 할 새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이 방향이 된다. 이렇게 방향하고 있는데 진정되려면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거를 목장에서 길게 나눔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목장 나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가보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 하셔서 예배에 목숨 걸라고 바라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남자는 직장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데 사명도 있지만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아내 집사님이 옆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겠다. 목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장에서 사람 살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눈물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 육도 영도 다 안 무너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처방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술을 먹~던 찜질방에 가던~ 하나님은 꼭 찾아요.”

나는 우리가 되었다 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게 처방이에요. 할렐루야!!!

송경영은 중공에 가서 뭘 나누고 살았을까? 자매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거기서 완전히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의 완전히 수장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아세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말씀 듣는 큐티와 예배의 자리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병임을 알고 용서를 구하며 계속 해석하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큐티하고 목장에 나왔다는 것이 갈 데가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샬롬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하도 요새 남자들이 이 승진, 회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고를 제가 읽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글썽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이 목보에 나눌 때까지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수준이 낮으신지 이게 그렇게 승진이 안 된다는 그 발표가 2주 만에 뒤집혀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

서 어제 임원으로 승진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이 기복적이잖아요. 되었다는 나눔은 또 기쁘게 또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 큐티하고 목장 가니까 우리 평원님이 육도 영도 안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육도 영도 안 무너지게 됐네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준이 높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수준이 약간 낮으시네 그죠?^^ 돼도 안 돼도 다 평안인 줄 믿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 죄사함의 평안을 주셔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 적용 질문이에요.

Q.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Q.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입니까, 자신입니까?

Q.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Q. 죄사함의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중국 송경영 얘기했는데 목장에서 정치 얘기하느라고 싸우지 마세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중국이 공산당으로 바뀌었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아셨죠?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다 구속사니까.

말씀 맺을게요.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떠났다가도 도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장, 교회, 이런 모든 가정, 직장..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을 멈춰야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날마다 눈만 뜨면은.. 그 정죄함과는 다른 죄사함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면은 죄사함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하자고요.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卍

기도제목

갔다가 도로 돌아와야 할 우리 교회, 목장, 양육, 가정, 회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헌금이 답례품이 아니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바라크의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받은 복을 세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사형수라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받은 복이겠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여 거절하지 못하는 이런 물질적 보답을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오늘 한 사람의 결정이 나라를 좌우했어요. 우리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 구속사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들어갈 때, 나갈 때가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서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갔다가도.. 주님, 우리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발람이.. 아무리 발락이 발람 보고 저주하라고 해도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떠났다가도 도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으로, 교회로, 목장으로, 회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답례품이 아니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크의 복을 받고, 바라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정죄함이 아니고, 죄사함의 평안을 누리도록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고백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사의 승진과 취업과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목장 가며, 그냥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걸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안 돼요.”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산층이 없어지며 양극화로 치달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이-팔전쟁에서 한 사람의 해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난민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예물이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여서 신앙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서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고, 이 신앙고백의 가치관으로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주여,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약]2023.10.22.(주일) 열왕기하5:15-19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깨끗해진 나아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요청할 때는 거만한 장군이었는데 은혜를 갚을 때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는 확실한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신앙고백을 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의 고백은

1.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

Q.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뒷간 갈 적 마음입니까, 나을 적 마음입니까? 즉, 간절합니까? 입을 싹 씻고 있습니까?

Q. 여러분의 헌금은 답례품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드리는 신앙고백의 베라카의 예물입니까?

Q. 갔다가 도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목장, 양육, 가정, 회사)

2.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16-17절)

- 다른데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한 길-사람 살리는 연구-에만 매진하여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번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커리코.
- 한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념을 섬긴 나머지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중국의 송경영 이야기.

Q. 내 선택의 목적은 돈입니까, 구원입니까?

Q. 구원을 위해 거절해야 하는 이익이 있습니까?

Q. 기복적인 욕심인 것을 애써 외면하며 아직도 끊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상, 이념, 명예, 돈, 자식 등)

Q.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3. 죄사함의 평안을 누립니다. (18-19절)

- 승진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방황하면서도 큐티하고 목장에 나오며 하나님을 찾으신 부목자님 나눔.

Q.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Q.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입니까, 자신입니까?

Q.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Q. 죄사함의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